

■ 특집 경제의 세계화와 공간의 변용

한국경제지리학회에서는 1997년 11월 22일 동국대학교에서 「경제의 세계화와 공간의 변용」이라는 제목으로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창간호에서는 여기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기조연설]

경제지리학, 혼돈과 도전

Economic Geography : Chaos and Challenge

형 기 주*

경제지리학이 모학문(母學問)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어 독립한지 어언간 약 1세기가 넘는 세월을 거치면서 이른바 패러다임의 변화를 여러차례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상품의 종류나 생산지 및 거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던 상업지리 시대로부터 경제활동에 대한 자연환경의 영향을 취급하던 시대, 그리고 경제활동의 지역성이나 공간조직을 경험적·실증주의적으로 취급하던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Peter Gould가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훌륭한 과학의 역사는 사려깊은 실패의 역사”가 거듭 되풀이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시대의 전위(前衛)는 다음 시대의 후위(後衛)가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Hegel이 그 자신의 시대에 관해서 언급한 것처럼, “사상(思想)이란 전시대의 사고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지만 얼마 안가서 그것 자체가 억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포장한 끈은 완전히 흩뻑을 것이 아니라 풀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증주의의 굴레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것도 그것을 너무나 단단히 결박한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감안하면서, 우리의 경제지리학을 회고하고, 전망하여 봅시다. 한국의 지리학회 창립된 것은 1945년이고, 해방의 혼란속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 지리교사를 양성하는 지리학과가 창설되었습니다. 해방과 함께 학회는 탄생하였지만 학회지 창간호가 세상에 나온 것은 1963년이니까 한반도에 아카데미 지리학이 제대로 움트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4년의 기간에 불과합니다. Paris 지리학협회의 창립이 1821년이고 보면 겨우 34세의 나이에 2000년의 「세계지리학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대견하기 이룰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카데미 지리학이 정착될 무렵 선진 여러나라의 지리학계는 Humboldt - Hettner - Hartshorne을 연결하는 전통지리학에 엄청난 도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한국경제지리학회장

전의 화살이 집중될 때입니다. 전통지리학을 대신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실증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론지리·계량지리의 등장인데, 이를 재빨리 수용한 분야가 경제지리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이론을 통해서 경제지리학을 재구성하려는 열의가 뜨거웠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미 개발된 이론으로 입지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논문들은 대체로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미시이론을 공간평면으로 바꿔 놓는 일이 주요 과제이었지요.

선진국의 지리학이 이러한 때 우리는 겨우 학회지 창간호를 냈고, 경제지리학 뿐 아니라 여러 계통 분야가 모두 일본의 학계를 통해서 한세대의 시차가 있는 방법론에 매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1950년대까지 일본의 지리학계를 풍미하던 경제지리학자로 사또·히로시(佐藤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류의 방법론입니다. 사또는 1930년대 독일의 B.Dietrich가 개발한 교호작용론(交互作用論)과 K.A.Wittfogel의 변증법적 교호작용론을 일본에 소개한 학자로서 당시 일본국내에서도 일부학자들에게 일본의 경제지리학을 선진대열에서 뒤떨어지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들 방법론의 골자는 경제활동의 지역성을 기술하는데 환경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있었으니까요. 본인과 같은 세대가 배운 경제지리학은 바로 이러한 유의 것이었지요.

일본경제지리학계의 이해는 곧 우리 경제지리학 발전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후, 일본 경제지리학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는데, 하나는 맑스경제학을 기초로 한 갈래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경제학을 기초로한 갈래입니다. 그런데, 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일본 경제

지리학계를 특징지워주는 것은 「경제지역」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에 대한 본질·조직·구조·성격·발전에 대한 견해가 혹은 맑스경제학적, 혹은 근대경제학적으로 양분되어 다시 그 속에서 여러 갈래로 세분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으니까요.

1950~1960년대 한국은 사회주의에 대한 금기와 경제적 후진성, 그리고 해외 교류의 어려움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의 전통지리 내지 근대경제학에 근거한 경제지리가 조금씩 밀수되는 형편이었고, 겨우 1963년에 한국에 아카데미 지리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경제지리에 전념하는 학자도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리학자 R.B.A. McNee가 'more geographic economic geography'로부터 'more economic economic geography'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 1960년대이고 보면 그 이전까지의 경제지리학은 접두사만 '경제...'이지 경제학의 기반이 전혀 없는 경제지리학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선진국의 지리학계 실정이었지요. 1970년대는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지리학의 과학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점차 경제기반이 좋아짐에 따라 외국의 지리학 정보가 쉽게 유입되고 유학생수가 늘어나 실증주의 경제지리학의 방법은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증주의 지리학의 주지는 지리적 사실 속에서 법칙을 발견(law-seeking)하고 법칙을 활용(law-applying)함에 있어서 가치를 배제하고 엄밀한 자연과학적 방법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같은 신지리학의 한국에의 도입은 시간 격차가 있었을 뿐 아니라 과학철학의 기초가 튼튼치 않은 위에 계량수법의 불충분한 이해때문에 몇가지 문제 현상이 대두되었습니다. 첫째는 많은 연구가

전통지리와 신지리학간의 패러다임 변화의 혼란속에서 전자나 후자나간에 소화가 불충분한 연구의 연속이 오래 계속된 점, 둘째로는 신지리의 경우에 소지역의 분석보다는 지역의 거시적 취급이 일반적이라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역연구가 소홀하거나 그 성과가 축적되지 못한 점, 셋째로는 영어권에서 개발된 개념이나 이론의 검증연구에 매달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독특한 지리적 사실을 우리가 개발한 방법으로 탐구한다는 자세, 즉 방법론의 개발에 소홀한 점, 넷째 패러다임의 혼란이 학교 지리교육의 혼란에 미친 영향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1980년대, 199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반실증주의 지리학이 경제지리학 분야에서도 널리 주장은 되고 있지만 실제로 발표된 논문들은 여전히 경험주의 내지 실증주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거나 그러한 방법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정치·경제적 접근이나 사회이론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경제지리학에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사례연구가 지극히 미진합니다. 학교지리분야에서는 개념·법칙·이론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아직도 지리교육은 소홀한채 겨우 von Thünen, A.Weber, W. Christaller의 모형을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실증주의 지리학의 맛에 겨우 익숙할 시점에 와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셈이지요. 앞에서 지적한 맑스주의를 비롯해서 행태주의, 인간주의, 구조주의, 제도학과, 포스트·모더니즘 등 다양한 철학과 접근방법을 통해서 실증주의적 접근에 반대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구·미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한국지리학계의 상륙

은 상당한 시간격차가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다양한 사고의 논의가 주로 80년대 중반이후 대학원 및 대학생들 사이에서 활발히 전개된 점, 이에 반해서 70~80년대에 대학강단에 등단한 교수들은 대체로 실증주의 틀속에서 해외교육을 받고 귀국한 학자들이 많은 점입니다. 학생들사이에서 이러한 논의가 활발했던 이유는 8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민주화 분위기와 함께 외국문헌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컴퓨터 인쇄 및 복사시설의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경제지리학은 도시지리학과 함께 석·박사 학위논문을 위시해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대체로 공업내지 기업지리분야가 우세했습니다, 실증주의 입지론을 극복하기 위한 관점에서 기업조직론적 접근 또는 행태론적 접근이 팔목됩니다. 독점자본주의 맥락에서 기업의 내·외적 조직 메카니즘과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공간조직의 변화를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테마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① 다공장기업의 본사 및 분공장의 입지, ② 산업구조의 조정과 산업공간조직의 변화, ③ 해외투자 와 다국적기업의 입지, ④ 첨단산업입지 및 산업지구, ⑤ 기업의 의사결정과정과 의사결정환경 등 다양합니다. 이밖에도 근자에 와서는 공업이외에 서비스업·정보산업·사무소의 입지 등 서비스 경제의 대형화에 따른 연구선호가 높아졌고, 세계화-지방화 맥락에서 기업공간이 어떻게 구조개편을 하고 있는가를 다루는 논문이 또한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발표된 많은 논문을 통하여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경제지리학자들이 전에 비해서 지역경제학자 및 도시전문가들과의 협조와 대화가 쉽게 이루어

졌고, 현실문제에 대한 발언이 높아졌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경향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지역경제학이고 어디까지가 경제지리학인지 분간이 모호합니다. 그런뜻에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경제공간인지 산업공간인지 기업공간인지가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기업조직이란 독점자본주의 대기업의 소산입니다. 이들의 의사결정과정과 입지변화와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자본과 노동의 역할입니다. 이른바 의사결정론은 본질적으로 자극과 반응관계를 정식화하려는 점에서 실증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장차 경제공간의 연구에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어떤 토양에서 어떻게 양생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셋째, 경제지리학은 결국 경제행위와 공간(지역)행위에 관한 연구입니다. 흔히 전자를 독립변수, 후자를 종속변수로 삼고, 가령 "이러이러한 global economy의 변화가 이러이러한 공간의 변화를 낳았다"고 설명하지만 경제와 공간은 마치 사회와 공간의 변증법적 발전과 흡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장차 이들의 상호성에 중점을 두되 우리가 찾는것은 공간구조·공간과정·공간조직에 있음을 흐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넷째, 경제행위는 궁극적으로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욕망의 종류는 다양하고 사람에 따라 선호양상은 다양합니다. 결국, 경제행위에 대한 문제는 사람에게 관한 문제에 귀착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장차 경제지리학이 착안할 점은 보다 인간중심(anthropocentric)의 접근 또는 문화적 접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종래에 논의되었던 '지역'이란 주로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에 의한 합성물로 정의되었습니다. 만 오늘날 논의되는 '공간'은 인간의 지각·사상·의도·기술의 실현이요 그속에 있는 역사적 과정이 우리 일상생활의 시·공적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의 process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밖에 장차 우리의 경제지리학이 힘을 써야 할 지엽적인 문제 몇가지를 열거합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경제지리연구는 상당수가 공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치우쳐 있습니다. 장차 1차산업을 비롯한 군소산업에 관한 연구가 요구됩니다. 이것은 경제지리학 인구의 저변확대와도 관계됩니다. 둘째, global-local 맥락에서 해외지역과 우리나라의 지역과는 networking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며, 따라서 보다 해외연구에 눈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셋째, 경제지리학의 현실참여와 함께 환경문제에 관심이 주어져야 하겠습니다. 넷째, 작은 지역 하나하나의 체계적 연구가 요구되며, 그러자면 사회지리학과 연계·협조가 요망됩니다. 사회와 경제는 동전의 앞뒤와 같고, 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담당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에서 인용한 Peter Gould와 Hegel의 말로 돌아갑시다. 한국의 경제지리학, 아니 지리학은 경험주의, 실증주의, 반실증주의가 얽혀 있는 패러다임의 혼돈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반실증주의를 전위로, 실증주의를 후위로 보아야 하기에는 실증주의로 부터의 해방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사려깊은 실패의 역사"로 보기에 우리의 지리학이 아직은 어느 패러다임에도 깊은 성찰이 없었습니다. 혼돈을 벗어나기 위한 과감한 도전이 요구될 때입니다.